

## 더 넥센 유니버시티는 기업의 아이덴티티와 녹색건축이 결합된 도심형 연구시설의 새로운 유형 제시에 중점을 둔 건물입니다

### 기능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파사드 디자인

- 남쪽과 동쪽 파사드에 설치된 유리 루버는 타이어의 꺾임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으며, 직사광선의 작업공간과 외부로부터 되돌아오는 반사광선의 양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습니다.

(일반 커튼월 건물 대비 약 20% 일사량을 조절하여 냉방부하 저감)

중정을 둘러싼 조경과 함께 설치된 루버들은 건물 전체에서 자연환기 시스템으로 건물의 복사열을 차단하고 냉난방 부하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연구 및 실험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공간들이 편안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 자연의 원리와 신재생에너지의 결합

- 전체 건물 중 연구동과 실험동의 동선을 이어주는 남측면의 아트리움 공간은 지상 1층 로비의 지열을 이용한 바닥복사 냉난방 설비와 연계되어 채광 및 상부 천창의 환기를 통해 주요 공용공간의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건물의 최상부에는 태양광 PV패널과 아트리움 천창에 BIPV 시스템을 설치하여 전력공급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녹지를 품은 연구소

- 더 넥센 유니버시티의 조경계획은 연구시설의 보안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Green Helix”라는 요소를 통해 수직·수평으로 연속적인 경험을 담은 입체적인 공간을 의도하며, 특히 건물의 중심이 되는 중정(Courtyard)은 입체적 공간에 둘러싸여 다양한 행사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중심 휴게공간입니다. 모든 층에서 조망이 가능한 중정은 대표적 경관 요소로써 잔디를 배경으로 새로운 재료들이 더해지면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 내며, 옥상의 녹화는 도시의 열섬현상 저감에도 기여합니다.

### 친환경 관련 및 국내외 다수의 건축상을 수상한 우수건물

-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대상 대상 (2020)
-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대상 (2019)
- 서울특별시 건축상 녹색건축부문 우수상 (2019)
-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2019)
- BIM Awards 우수상 (2019)
- WAN Awards(국제 건축상 공모) 은상 (2019)